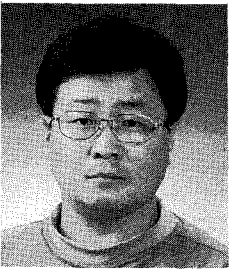


## 위탁 종계장 방역위생관념 상승과 노계 및 환우계 도태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송 치 용  
(양계임상 수의사/보람동물병원장)

몇 년 전만 해도 가금티푸스란 질병은 산란계나 특정 부화장만의 문제로만 생각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계 사양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나 2000년, 2001년을 거치면서 뉴캐슬병 때문에 마음조리며 농장운영을 해오던 중에 이제는 오히려 가금티푸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져가고 있는 듯하며 점점 더 만연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정도가 됐다.

이에 가금티푸스가 육계농장에서 발병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나 알아보고 또 이 질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농가 1

'01년 10월 11일 문제가 된 계군 10,000수를 포함하여 두 부화장에서 30,000수를 세동에 나누어 입추시켰다. 입추당 일 I 부화장 기사가 병아리를 내려놓고 항균제(엔로플록사신)를 내밀어 웬것이나고 물었더니 요즘 호흡기질병이 많으니 주는 것이라기에 농장주는 그 약을 1주일동안 투여하고 있었다. 입추 8일째 필자에게 연락이 와서 농장을 방문해 보니 I 부화장에서 받은 병아리만 들어있는 3동에서 하루에 500수가 넘게 폐사가 나오고 있었다. 해부검사 후 가금티푸스로 진단하고 세나마이시나 투여를 지시한 후 가검물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했다.

부화장이 엔로플록사신 특정회사 것만 쓰면 괜찮다고 우겨 그 약품을 투여하기도 하면서 이 문제가 정확히 협의가



안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다른 두 동은 90%이상 출하되었고 3동에서는 60%도 출하가 안되었다. 본인이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해본 결과 부화장에서 주고간 항균제(엔로플록사신)는 감수성이 없었다.

## 농가 2

'02년 1월 7일 3개 부화장에서 총 48,900수를 세 동에 나누어 입추를 했는데 1주일 동안 가장 폐사(1주일 폐사 213수/16,000수, 1.3%)가 적고 상태가 양호했던 1동에서 8일령부터 폐사가 급격히 증가했다. (7일령:13수 폐사, 8일령:153수, 9일령:458수, 10일령:236수) 필

기간	1주	2주	3주	4주	5주	36일
폐사수	213	1,350	344	237	248	89
폐사율(%)	1.3	8.4	2.2	1.5	1.6	3.9

※주령별 폐사율 (16,000)

자가 8일령 오전에 농장을 방문하여 티푸스로 진단하고 부화장에 통보한 후 가검물을 의뢰했다. 농장주가 부화장과 합의하여 사육하기로 결정하고 오후부터 세나마이시나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여 이 농장에 적합한 약제를 선택하여 집중관리(3일투약, 3일휴약을 반복하여 30일령까지 실시)한바 폐사수는 급격히 줄었지만 출하시까지 2,392수(15%)가 폐사했으며 체중미달로 700여 마리가 출하되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이 농장은 부화장에서 보상을 받아 금전적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사육기간 내내 마음 졸이며 불안해해야만 했었다.

## 농가 3

'02년 1월 28일 문제가 된 K 부화장 병아리

31,800수를 포함하여 총 43,800수를 4동에 나누어 입추했는데, K 부화장 병아리에서만 7일령부터 폐사수가 급증하여 하루에 700~900수에 이르렀다.

필자가 방문해 보았을 때 이미 간과 비장이 심하게 종대되어 있고 간표면에 회백색 괴사반점이 산재해 있었다. 이에 가금티푸스로 가진단하고 가검물을 검역원에 의뢰하여 가금티푸스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농장주는 농장문을 닫고 사육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부화장의 부탁으로 치료해 가면서 키워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질병의 특성상 항균제를 투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폐사가 줄었다가 약품을 투여하지 않으면 다시 폐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농장주는 늘어나는 약품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죽은 병아리는 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가 걱정이 되었고, 부화장과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호흡기 질병까지 복합감염되어 폐사수가 다시 늘어나자 사육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육결과는 37일 사육하여 58%의 육성율로 평체 1.3kg, 사료요구율 3.02로 돈을 벌기는 커녕 2000만원이 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위 농장의 예에서 보듯이 금전적으로는 차이가 크지만 농장주의 심정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육계농장 차원에서는 근원적으로 이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다음번 육계사육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이 질병을 종계장에서부터 몰아내야만 티푸스로 인한 육계농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1. 육계농장에서의 대책

티푸스감염 병아리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미리 알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티푸스에 감염된 병아리라도 7일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발견하기가 어렵다.

티푸스에 감염된 병아리는 잘 자라다가 보통 7~8일령부터 급이거나 급수기 주위에서 죽는 것이 발견되고 폐사수가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 집에 있던 항생제나 가축약품에서 원하는 약을 투여하지 말고 반드시 양계 전문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고 부화장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에 약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정확히 치료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래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장마

표. 육계병아리에서 분리한 가금티푸스균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결과

〈농가 1〉	+++	가나마이신, 아목사실린
	-	엔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시플록사신, 암피실린, 설파트리메토프림, 겐타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후랄타돈
〈농가 2〉	+++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아목사실린, 설파트리메토프림
	+	엔로플록사신, 시플록사신, 후랄타돈
〈농가 3〉	-	노플록사신, 암피실린
	+++	설파트리메토프림, 후랄타돈, 아목사실린,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	암피실린, 엔로플록사신, 시플록사신, 테트라사이클린
	-	노플록사신

※ +++: 감수성 아주 좋음 ++: 감수성 좋음 +: 약한 감수성 -: 감수성 없음

다, 부화장마다 감수성 약제가 틀릴 수 있고 정반대의 결과도 나온다.

## 2. 종계 · 부화장에서의 예방 대책

국내 종계장이 가금 티푸스에 노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부 위탁종계장의 방역위생관념의 부족과 고가 병아리 시세의 지속에 따라 노계가 도태되지 않고 환우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종계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현격히 높이고 즉 총체적 방역관리 체계(Bio security)를 갖추고 환우를 시키지 않겠다는 부화장 합의와 실천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또한 종계의 평사사육이 주종을 이루면서 정기적인 혈청검사가 귀찮은 일이 되어 실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종계장이 한번 티푸스균에 오염되면 그 피해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수습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기적인 혈청검사와 양성계 도태를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 할 때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수평감염을 줄일 수 있는 사료내 유기산제 첨가가 있고 항균제에 의한 정기적인 크리닝도 실시하는데 반드시 감수성검사를 거쳐 적합한 항균제를 찾아내어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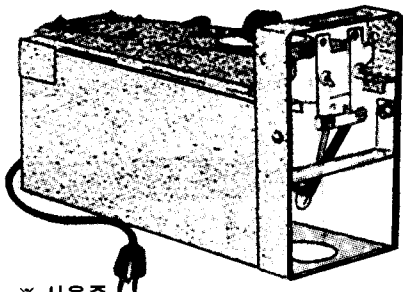
또한 축산정책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되어 추백리와 티푸스 음성 종계군을 만들어 가는 부화 종계장에는 인센티브를 티푸스병아리를 만들어 내는 부화장에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계**

#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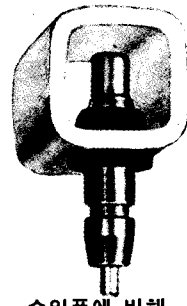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납 풀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보령산업개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 27  
 전화 : (02)461-7887 (주·야)